

설 연휴기간 불법 환경오염 행위 막는다

전주시, 11~24일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별감시체계 가동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설 연휴기간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는 설 연휴 전인 11일부터 20일까지 대기·폐수배출 시설 운영 사업장 등 관리인력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취약지역 및 업소에 대해 순찰 인력 운영 등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 21일부터 24일까지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주요 하천인 전주천, 삼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단속 및 하

천 수질오염 예방 활동을 보다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등에 각기관별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오염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와 감시 시각 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연휴기간 행정기관의 감시인력 부재 시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나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63-128)나 시청 상황실(063-281-222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영 기자



사단법인 오송제지킴이(회장 정은옥)는 5일 전주시청을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에 오송제 환경보존을 위한 후원금 391만716원을 전달했다.

“오송제 환경보존에 사용해주세요”

오송제지킴이, 전주시에 모금 캠페인 통한 후원금 전달

사단법인 오송제지킴이(회장 정은옥)는 5일 전주시청을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오송제 환경보존을 위한 후원금 391만716원을 전달했다.

기탁한 후원금은 오송제지킴이가 오송제의 생태계를 보존해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오송제를 물려주는 취지로 추진해온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은 것이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오송제는 만수면적 3.5ha 규모로, 산소공장으로 불리는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청정지역에서만 관찰되는 각종 곤충이 서식하는 생태호수공원으로 시

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송제 생태에선 주변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과 비료 퇴비 등이 빗물을 타고 유입되면서 수질오염과 부영양화를 유발하고 있어 오송제지킴이 회원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오염원 제거를 위한 환경정비와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송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사단법인 오송제지킴이 모든 회원님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송제 생태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전북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1372건 발생

전주덕진소방서, 매년 250건 이상 발생... 초기대응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되며 1112만5,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가 차량화재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매우 중요한 초기대응의 신호탄으로 강한 감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매년 2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1,37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96억2718만 원의 큰 재산 피해



지난달 19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모습

가 발생했으며, 원인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부주의, 교통

사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우선 차량 내부에 매캐한 냄새나 연기가 들어온다면 갖길에 차를 세우고 엔진룸과 타이어 등 외관 점검을 한 뒤, 화재 징후가 확인되면 119에 신고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자체 진압하거나 화재가 급하게 확산한다면 멀리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정영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차량 화재의 최우선 예방이지만 차량 화재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에 따라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김영태 기자

신중년 채용 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

전주시, 16일까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전주시가 만 40~60세의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고용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에 시는 오는 16일까지 신중년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 업체 공개 모집을 하고있다.

이번 사업은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월 70만 원 급여 지원 예정으로, 시는 올해 27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 채용 계획이 있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전주 시청 일자리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0,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전주시 완산구, 종합상황실 운영·현장 밀착행정 강화

전주시 완산구는 설 연휴기간 중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맞춤형 민원 처리 방식의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완산구는 앞으로 ‘이웃사랑, 가로 정비, 교통, 청소·위생, 공원·녹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청소 취약지 쓰레기 수거, 도로 시설물 점검, 공원·하천 정비, 불법 광고물·적치물 단속 등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총괄지원반 등 5개 대책반으로 구성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긴급상황이나 주요 동향 발생 시 발빠른 대처를 위해 재택근무반을 별도·편성 운영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 없는 근무상황 유지와 적극적인 현장 밀착행정을 추진해 시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제7대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김인순 여성회장 취임

전주완산소방서가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 홀에서 ‘제7대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임실군수, 군의회 의장, 도의원, 도연합회장 등 지역 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로 취임하는 김인순 여성회장은 “영광스런 취임식을 통해 축하드리며,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열정과 리더십으로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 회장은 ‘관내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생활개선회’ 등 여러 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전개해왔고, 남성회장과 함께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영광스러운 취임식을 통해 축하드리며,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열정과 리더십으로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